

◆ 쑨쑨위예(孫軍悅) “역사가의 입각점(立脚点)”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몽고 내습과 13 세기 몽골 제국의 세계화-’ 라는 제목의 포럼이 3 일째를 맞이하여 논의도 한층 더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전문적인 응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한국 · 중국 · 일본 · 몽골에서 한자리에 모인 역사가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에 기뻐하기는커녕 아마추어인 나는 무언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과연 참가자들은 “이 포럼이 전문적인 역사학의 국제심포지엄과 어디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또한 “역사가는 역사 화해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는 포럼의 취지와 본인의 전문적인 연구가 어떻게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하여 ‘역사가들’, 특히 일본의 연구자들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감의 이유는 2 가지이다. 하나는 다른 나라의 사료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역사가들의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의 교류를 그대로 ‘국사적 입장’의 초월로 파악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에 있어서 그 역사 인식에 대한 책임이 없는 700 년도 이전의 사건이 화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인지에 대한 나의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몽고 내습에 대해 전혀 무지한 나조차도 이틀 짜 회의에서 그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해 준 연구자들의 논문이 실로 놀라운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 뛰어난 역사 연구에 <지금 · 여기>를 살아가는 역사가인 자신의 역사성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에 당혹스러웠다는 것이다.

물론 구두 발표와 토론에 있어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발표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발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논문들을 자세히 읽어 보면 역사와 현실과의 관련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는 청일 전쟁 후에 일어난 원구 기념비 건설 운동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러일 전쟁을 앞두고 구미 열강에 대항하며 국가의 생존 전략을 세워야만 했던 메이지 시대 일본이 처한 상황이 현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과도 어딘가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2015 년에 간행된 원구를 소재로 한 만화에서 그려진 화약 무기에 대해서도 ‘대략 730 년 후 첨단 군사 대국으로 해상에 대두하게 되는 이웃 나라에 대한 공포적 상징이며 나아가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해석은 지나친 것일까?’. 이러한 내용들에서 논자의 현재에 대한 역사 인식 및 과거와 현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관점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메이지 시대와 현재에서 다시 한 번 원구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원구자료관을 안내해 주신 NPO 법인 시카역사연구회의 오카모토 아키자네(岡本顕実) 씨의 해설은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오카모토 씨는 1904 년에 지어진 원구기념관을 청일 전쟁에서 패전까지 전속력으로 돌진한 일본 군국주의의 기점으로 지목하고, 나아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을 기념관의 희생자라고 단언한 후, 다시 한 번 사료관의 건립 당시의 역할과 오늘날의 역사적 의의의 차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1904 년 당시의 원구기념관과 전후의 원구사료 관뿐만 아니라 8 월 9 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신의 담론 행위의 역사성도 명확히 자각하고 계시는 그 역사적 감각의 예리함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역사가는 국가의 관점에서 역사를 파악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 있어 역사적 사실과 사료로서 전시품 자체의 진위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반면 일반 시민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흔히 현재의 강한 문제 의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의 운명보다 개인의 운명에 보다 주목한다. 따라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왜, 지금, 여기에서, 이 처럼 다른 역사가 아니 해당 역사를 언급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역사가가 자기의 현재의 정치적 입장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역사 연구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다만 이러한 상식과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역사가들이 스스로의 주체성 혹은 개성을 완전히 몰갈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는 사상사를 쓰는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상사를 쓰는 경우에는 아무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입장이나 생각이 있더라도 이를 초월적으로 일도양단하지 않고 일단은 그 사상적 내용에 몸을 던져 그곳에서의 전망을 가능한 한 충실히 관찰하고 체득해야 한다. (중략) 이에 사상사의 서술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내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저절로 자기의 입각점을 침투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해’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대주의에 빠져 진정한 역사적 자리 매김을 이룰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자신의 입각점’ 없이도 역사 연구가 가능한 것은 아마도 학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야만 했던 일본의 근대 역사를 통해 형성된 건실한 실증주의적 학풍(일본의 근대 사학의 하나의 특징)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학 역사에서의 뛰어난 연구 업적이

현실 역사에서는 의외로 초라한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역사가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의외로 빈약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가르침 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전후 중세 역사가인 이시모다 쇼(石母田正)는 사료 비판의 경험적 기술 수준에 머무는 이른바 ‘실증주의 역사학’의 무(無) 목적, 무(無) 사상, 무(無) 성격을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서양 사학을 능가하는 청일·러일 전쟁 시대에 성립된 동양 사학의 실적과 ‘고대 문화에는 동정과 존경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경멸과 절망을, 이전 대국의 골육을 다양하게 새기고 해부한 객관적이고 냉엄한 “학문적” 태도’와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물론 마루야마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선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보류하고 역사 내부에 침잠하여 철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부활시킨 역사상(歷史像)에 대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 역사적 해석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만약 역사가의 ‘입각점’이 그 외부에 있고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역사 서술에 의식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저절로 침투하는 것’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역사의 확고한 ‘입각점’은 역사가 스스로가 살아가는 현실을 통해 그 인간의 내부에 형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에서 매일 연마해 나가는 모든 사건을 그 내부에 침투하여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방법과 능력 및 감각이야말로 확고한 입각점으로 역사가의 개성과 합쳐져 과거사에 대한 파악에 자연스럽게 침투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는 하지만 과거의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과의 긴장감을 통해 이루어낸 역사적 고찰이야말로 고통스러운 학문적 영위를 통해 획득한 역사적 지식을 단순히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내재적 연관성을 시사하는 역사의 맥동(脈動) 또한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닐까? 열기가 식어버린 과거를 어디까지나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냉철하게 해부하는 것보다는 현실의 체온이 느껴지는 역사의 주체적 인식 쪽이 적어도 나에게서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다.

1997년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등장한 후 7년이 지난 2004년 이전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설명이 보기 좋게 모든 교과서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가 2016년 ‘반일극좌’ 교육의 딱지가 붙여진 비판의 폭풍우를 맞으면서 다시금 교과서에 나타나기까지 무려 12년의 세월이 걸렸다.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조차도 정치가들에게는 ‘다양한 역사 서술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견해'의 하나로서 취급되고 있는 시대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게 되었다. 역사가는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매일 과거와 씨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금 · 여기>를 살아가며 미래를 책임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전문적인 연구, 현실 정부의 정책 동향, 민중의 역사 의식 사이의 긴장감, 역사 인식과 역사 서술 현실 및 미래의 복잡한 관련성에 대해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 여기>를 살아가는 역사가의 역사 서술에는 이미 미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孫軍悅 (쑤 · 쑤위예) ☆ Sun_Junyue>

2007 년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만기퇴학. 학술 박사.
현재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 문학부 전임강사. 전문 분야는 일본 근현대문학, 중일 비교문학, 번역론.